

양돈산업의 진로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돼지고기는 우리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식육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양돈가의 창의적 노력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생활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화 물결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큰 변화를 예상케 하고 있다. 극심한 돼지파동에 시달리면서 살아남은 양돈산업은 이제 국제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경쟁이란 주로 돼지고기의 품질과 생산원가 경쟁으로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돼지가 먹는 사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해서 먹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여건 하에서 사료를 자급 자족하는 나라의 돼지고기와 가격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경쟁 상대국에 비하여 약 30% 정도 생산비가 높은 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주변 여건을 경쟁 대상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즉 경쟁 대상국과 비슷한 생산기반 위에서 농가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경쟁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생산시설 기반 위에서 경쟁을 하라는 것은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제경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축산생산자재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철폐하여 돼지고기 생산비의 60%를 점하고 있는 사료비의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인력 위주로 경영하고 있는 우리의 양돈산업을 최대한 기계화 하여 성력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양돈산업을 기계화 및 기본시설을 개조한다는 것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같은 자본은 양돈농가 자신의 투자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

“

국제경쟁을 위해서는
먼저 축산 생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철폐
해야 하며, 양돈산업을 기계화하여 성력화를 달
성키 위해 장기저리의 정책적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돈인 스스
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

이다. 돼지의 생산기반 현대화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20~30년의 장기, 저리상환 조건의 적극적인 정책적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모든 양돈농가가 전적으로 비싼 공장배합사료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배합사료의 원료를 양돈농가 스스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자가배합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육돈의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생산된 양돈산물은 생산자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정가격과 유통체계에 따라 거래될 수 있도록 유통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로 정립되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양돈업계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서는 양돈업자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간섭에 의존하면서 양돈업이 지속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비능률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양돈인 스스로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축적된 이 재원을 활용하여 양돈인 스스로 양돈업계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업종별 자조금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양돈산업의 기반조성 여건이 경쟁 대상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서 반드시 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수준의 기반 시설위에서 양돈농가 자신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양돈기술 수준을 최소한 경쟁 대상국의 평균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 평균 기술 수준이란 품질과 생산원가로서 비교된다. 즉 바꾸어 말하면, 고용능력에 의한 양돈이 아니라 스스로가 일하면서 국제수준 이상의 이윤을 바라지 않는 양돈이라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양돈산업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양돈농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전국의 양돈농가가 소리를 합하고 지혜와 힘을 결집할때만이 가능하게 된다.

미래의 밝은 꿈과 희망의 양돈산업 구축을 위하여 전국의 양돈인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일어서야 할 때이다.